

의료현장 필수 의약품 안정공급 위한 제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 및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와 함께 수액제 등 현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관련 업계*와 간담회를 4월 2일 개최하였다.

* (참석) HK이노엔, JW중외제약, 녹십자MS, 대한약품공업, 제약바이오협회

관계부처는 그간 업체와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여 수액제 등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수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*하고 있으며,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체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사항을 논의하였다.

* (산업부, 3.30) 수액제 포장재는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고 대체 공급 방안도 추진중

간담회에서 업체는 ▲플라스틱 레진 의료용 우선 공급 ▲의약품 소량포장의무 적용 완화 등 행정지원 ▲원가 상승을 반영하는 재정 지원 등을 건의하였고, 이에 정부는 레진 보건의료용 우선 공급 지도, 소량포장 의무 완화를 포함한 적극행정 신속추진, 나프타 추경 등 원가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추진을 통해 건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.

오유경 식약처장은 “수액제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필수약품으로, 정부는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현장 필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, 이번 간담회를 비롯하여 업체와 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의료현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당부하였다.

정부는 앞으로도 제약사 등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수급상황을 지속

모니터링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국민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	책임자	과 장	최광준 (044-203-4290)
		담당자	사무관	성소윤 (044-203-4291)
<총괄>	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지원팀	책임자	과 장	권혁승 (043-719-2821)
		담당자	서기관	김선영 (043-719-2822)
			사무관	이상태 (043-719-2823)
	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과	책임자	과 장	임강섭 (044-202-2960)
		담당자	사무관	조영기 (044-202-2961)